

여수 만성리 해변 주거·관광 공존 특화지구 개발

관광공사-LH '민간임대 촉진·맞춤형 관광계획 수립' 업무협약 체결 8000명 수용 택지 개발...해양레저·음식 등 관광복합레저지구 조성

여수 만성리구가 주거와 관광이 공존하는 관광 특화지구로 개발된다.

한국관광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일 '여수 만성리 민간임대 촉진지구 맞춤형 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여수 만성리구의 맞춤형 관광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 이달 중 도시·건축·조경·지역경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위촉해 관광 등 각종 특화방안에 대해 자문을 구할 예정이다.

'여수 만성리 민간임대 촉진지구'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지역 대표 해수욕장인 만성리 검은모래해변과도 연결된 곳으로 총 사업면적 40만6000㎡ 규모다. LH가 약 8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용지와 판매·업무시설(2만㎡) 용지 등을 조성한다.

특히 기존 주택지구계획에 해양레저, 해변음식·

쇼핑거리, 체류형 관광 등 신규 관광사업을 포함해 관광복합레저지구로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이곳은 지역 대표 관광지인 여수세계박람회장(여수엑스포)과 2.5km, 돌산공원과 5km 정도로 가깝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광 개발과 주거공간 개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맞춤형 관광개발 콘셉트 발굴·적용 ▲'주거와 관광',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모델 개발 ▲지역공공 SOC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단일기능→관광까지 포함한 복합기능)을 위한 관광컨설팅 등이다.

올해 12월까지 관광공사가 제안한 방안을 반영해 지구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가진 경험과 역량을 공유함으로써 여수 만성



주거와 관광이 공존하는 관광특화지구로 개발되는 여수 만성리 검은모래해변. <광주일보 자료사진>

지구를 명품 관광도시로 조성하고, 이를 토대로 생 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양 백운산 반달가슴곰 보호 불법 엽구 '올무' 무더기 수거

광양시는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의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벌여 올무 수십 개를 수거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

광양시는 지난달 광양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백운산 일대에서 60여 개의 불법 엽구를 수거한 데 이어 최근 다압면 금천리 일대 야산에서 올무 20여 개를 추가로 수거했다.

지난달 불법 엽구 수거 장소에서 불과 2주 만에 다시 불법 엽구를 발견하고 다른 장소에서는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엽구도 발견했다.

2018년 6월 14일 백운산에서 반달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폐사한 채 발견됐다. 이후 광양시와 환경단체는 불법 엽구 수거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올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광양시는 불법 엽구 수거 활동에도 밀렵 행위가 끊이지 않자 백운산 일대에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석곡 흑돼지 숯불구이' 곡성군, 대표 맛으로 육성

곡성군이 석곡 흑돼지 숯불구이(사진)를 대표 먹거리로 육성한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민선 7기 공약으로 석곡 흑돼지 특화음식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사업으로 흑돼지 음식점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지난해 말부터는 업소의 시설 개선 지원을 시작했다. 4곳을 대상으로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해 최근 1호점의 문을 열었다.

시설개선 1호점인 돌산숯불회관은 석곡에서 26년 동안 흑돼지 연탄 숯불구이를 고수해 온 맛집이다.

노부부가 차려낸 된장국과 숯불구이에서는 어머니 손맛과 정취가 느껴진다. 직접 양념을 치면서 짜낸 꿀꿀을 이용해 각종 양념을 만들고, 양념한 흑돼지는 연탄과 숯불의 화력을 이용해 태우지 않고 구워낸다.

식탁에는 소형 화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식사 내내 따뜻하고 은은한 향을 유지한 채 숯불구이를 즐길 수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여수~고흥 연륙·연도교에 체험관·휴게쉼터 생긴다

조발도 해오름언덕에 11억 들여 'VR 체험관' 등 설치

여수시와 고흥군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에 VR 체험관과 휴게쉼터 등 여행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설치된다.

13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관한 '블루투어 섬관광안내소 조성 공모사업'에 여수가 최종 선정돼 도비를 포함해 11억 원을 연륙·연도교에 투입한다.

여수시는 올해 연말까지 화정면 조발도 해오름언덕에 휴게쉼터를 비롯해 '다목적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관광객 편의시설로는 VR 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푸드 밴크, 카페, 루프탑 전망대 등이 함께 들어선다.

조발도 해오름언덕은 2300여㎡(700여 평)의 부지에 여수-고흥 간 4개의 연륙·연도교가 보이는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주차장과 화장실이 있는 데다 푸른 바다와 다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관광안내소 조성을 추진해 여수-고흥 연륙·연도교를 찾는 관광객



여수시 화정면 조발도 해오름언덕에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연륙·연도교 관광안내소와 쉼터가 조성된다.

들에게 차별화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겠다"면서 "브릿지 시티투어" 사업과 연계한 관광객 중심의 콘텐츠 개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8일 개통한 여수와 고흥 사이 4개 섬을 잇는 연륙·연도교는 개통 첫날 차량 8000여대가 방문했으며, 개통 3일째인 3월 1일은 1만900여대가 다녀갔다.

그러나 종합 안내시설이 없어 관광객 불편이 컸다. 인접한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 상화도·하화도 뒷섬, 사도·추도의 공동 발자국 등 섬 관광 자원을 연계할 안내소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여수=김청화 기자 chkim@kwangju.co.kr



지난 10일 오후 여수 첫 개장한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에서 마스크를 쓴 상인이 방문객들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곡성군 제공>

곡성 기차당뚝방마켓 첫 개장...매주 토요일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운영을 중단한 곡성 기차당뚝방마켓이 지난 휴일에 오후 첫 개장했다.

13일 곡성군에 따르면 기차당뚝방마켓은 기차마을 인근 천변에서 2016년부터 시작한 플라마켓으로, 올해는 지난 3월 7일 개장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곡성군과 기차당뚝방마켓협동조합측은 조합 이사를 방역 관리자로 지정하고,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 영역으로 나눠 방역 대책을 수립해 지난 10일 재개장했다.

행사장을 소독하고, 입구 3개소에 방역 인력을 배치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이 있는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했다. 다중이용시설에 평균 필

름을 부착하고, 행사장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했다.

각종 배너와 현수막 등을 통해 안전 및 방역 수칙을 안내했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방문객을 위해서는 상인 4명이 현장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했다.

5월 중에는 뚝방마켓을 기다려온 방문객들을 위해 기존 개장일인 토요일인 16일, 23일, 30일과 함께 일요일인 24일, 31일에도 추가 개장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뚝방마켓이 물건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이용객들이 행복을 주고 받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전국 3대 명당으로 꼽히는 보성을 아십니까?
그 곳에 수목장이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이장부터 안치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수목장 * 자연장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061)322-6183